

圖協消息

圖協 第九次 定期總會 開催

1963年 第9次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하오니 全會員의 無漏 參席을 바라나이다.

1962年 12月

日

社團 韓國圖書館協會
法人

會長 閔 泳 珪

記

1. 日 時 1963年 1月 19~20日 (兩日間)
2. 場 所 中央教育研究所 講堂 (南山 서울中央放送局 옆)
3. 案 件
 1. 一般情勢 報告
 2. 1962年度 事業報告 및 決算의 件
 3. 1963年度 事業計劃 檢討 및 豫算의 件
 4. 定款修正의 件 (地方組職에 對한)
 5. 任員選舉
 6. 其 他

第9次 定期總會 日程表

時 間	日 字	
	1963年 1月 19日(土) 第1日	1963年 1月 20日(日) 第2日
10:00~10:30	開 會 式	10:00~11:30 任員選舉
10:30~11:00	一般情勢報告	11:30~12:00 其他重要案件
11:00~12:00	1962年度 事業報告 및 決算에 關한 件	12:00~12:30 閉 會 式
12:00~13:00	晝 食	
13:00~15:00	1963年度 事業計劃檢 討 및 豫算에 關한 件	
15:00~16:00	定款修正에 關한 件	

技 術 委 員 會 會 議 錄

日 時 : 1962年 12月 10日 下午 3時
50分

場 所 : 圖協事務局

參 席 者 : 金京一, 朴熙永, 李春熙, 任
鍾淳, 張一世, 千惠鳳, 李鍾
文, 白麟,

案 件 : 1. 目錄規程 推進結果 檢討
2. 用語辭典 編輯計劃
3. 第6次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
4. 63年度技術委員會 事業에
對한 懇談會

案件 1 : 目錄規程 推進結果 檢討

案件 1에 對해서는 來 12日 午後 6
時 30분에 目錄分委만이 다시 모여
서 議論키로함.

案件 2 : 用語辭典 編輯計劃

朴熙永 : 其間 原稿 檢討를 繼續하였
으며 最終的인 檢討를 爲하여 저
의 집에서 지난 日曜日 (12月4日)
會議를 가지기로 하였으나 用語
의 取舍選擇問題만을 決定하고 말
았습니다.

金京一 : 用語의 定義事業을 가나다順
으로 나누어 分擔하고보니 參考資
料의 貧困으로 定義를 내리기 힘든
用語들이 있습니다.

當初에 專門分野別로 分擔했다라면
더 容易하게 處理되었을 줄로 압니
다.

이제라도 이 用語의 定義事業은 專
門分野別로 檢討되어야 할 줄 압니
다.

朴熙永 : 이제까지 여러분이 分擔하여
手苦作成하신 原稿를 當初에는 한
사람이 檢討키로 되어 제가 그간
檢討하고 몇군데 訂正도 하여 보았
으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完全을 期
할 수 없을 것이고 하여 어떻게 했
으면 좋을는지 여러분의 좋은 意見
을 바랍니다,

李鍾文 : 아무튼 用語辭典은 原來計劃
대로 年末까지는 꼭 出刊해야 된다는
前提下에 議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熙永 : 그동안 “가”項目中 50餘頁을
訂正했는데(例를 說明) 이대로 제
가 繼續 檢討訂正하는 것을 여러
委員들께서 어떻게 生覺하시는지?

金京一 : 朴熙永先生이 繼續檢討하되
可及的이면 이달 18日까지 完了키
로 하고 “가”項目 外의 餘分原稿를
朴熙永, 李喆珪, 李春熙, 任鍾淳,
金京一 등과 같은 順序로 委員들이
分擔 檢討하여 最終的으로 朴熙永
先生에게 다시 돌려서 檢討한後 20
日까지 事務局에 引渡키로 하는 것
이 어떨는지?

단. 古書部分만은 千惠鳳先生이 맡
는 것이 좋겠다.

그 보다는 李春熙, 任鍾淳, 朴熙永 세분이 檢討키로 全員合議 亦是 古書部分만은 千惠鳳氏가 맡기로 하고 그 외에는 前記 세분이 리례式으로 檢討하여 19日까지는 事務局으로 引渡하도록 決議된.

案件 3 : 第6次 定例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

白 麟 : 지난 第6次 定例理事會에서 우리 技術委員會에 委任된 分類表에 對해서는 國立圖書館의 案이 本來 朴奉石氏의 K,D,C,를 主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바 이것을 圖協案으로 多少 修正을 해서 받아 드릴 것인지 혹은 原來計劃대로 새로운 圖協案을 만들 것인지를 決定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李春熙 : 새로 設立되는 圖書館을 위해서나 館界의 緊要性으로 보아서 는 早速한 時日內에 分類表制定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것(國立圖書館案)을 圖協案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時意에 따른 것보다는 遠大한 設計下에 보다 權威있는 좋은 標準分類表를 만들려면 따로 構想하는 새로운 圖協案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張一世 : 龐大한 分類表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 생기는 圖書館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줄 압니다. 于先 이 分類表를 不便한 部分만 고쳐서 急한 要請에 應하는 것이 좋으리라

金京一 : 이 案을 받아 드리는 境遇 主類를 고치는 것도 可能한 것인지?

李鍾文 : 이 案에 對한 主類를 變更하는 問題는 國立圖書館關係者와 다시 相議해야만 斷言할 수 있겠으나 本委員會의 切實한 要請이라면 可能한 것이라 봅니다. 단, 分類表(圖協案) 編纂事業이 63年度 協會의 緊急한 事業으로 採擇하는 問題만은 原則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全員 同意

朴熙永 : K.D.C.의 原思想을 이어 받아 用語의 表現을 달리 해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千惠鳳 : 이제까지의 經驗으로 보아 K.D.C.를 中心으로 만들어진 分類表가 앞으로 圖協이 推薦하는 標準分類表로서의 各級圖書館에 普及될 때 實務面에서 惹起될 여러가지 混難을 生覺한다면 이것(國立圖書館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白 麟 : 이것의 採擇如否를 長時間 曰可曰否하여도 더 以上 좋은 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表決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합니다.

劉永珪 : 이 問題는 重要的 것이니 全 技術委員이 出席한 자리에서 다시 討議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면서 最小限 修正을 加하여 採擇하는 것을 勸諭합니다.

千惠鳳: 이것은 國立圖書館으로 되돌려 보내면 自然히 完成될 것이다. 그리고 따로 圖協대로의 새로운 標準分類表를 構想하여 編纂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白麟: 그러면 于先 이제까지 論議된 案을 整理하겠습니다.

먼저 第1案은 朴奉石氏의 主類排例에 對한 根本思想을 그대로 살리되 主類整理에 모순이 있을 때는 本委員會에서 贊成할 수 있는 條件下에 받아 드린다.

第2件은 張一世氏의 案으로써 可能한限 主類表를 變更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細部的인 展開部分에서만 變更할 수 있는 條件下에 받아 드린다.

第3案은 千惠鳳氏의 案으로 本來 K.D.C.의 意圖한바가 우리나라의 固有한 分類表를 만드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인만치 이 固有한 特性을 發展시킨다는 見地에서 볼때 主類表의 修正은 不可한 것으로 生覺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國立圖書館에서 繼續 完成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것을 修正한다 하더라도 當初에 國立圖書館으로부터 委囑되어 草案한 분들이 大部分 現在 여기계신 技術委員들인바 다만 未完成된 체로 지지 不進한 理由가 誠意와

協助가 不足한 탓이라고 思料된다. 그러므로 可能하면 이제까지 推進하든 곳에서 完成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李鍾文: 이 問題는 重要的 案件이므로 缺席委員에게도 以上の 세가지 案을 通知하여 意見を 물어서 表決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全員同意하여 表決에 附한바 아래와 같다.

第1案: 白麟, 金京一, 李春熙, 朴熙永 贊同

第2案: 張一世, 劉永珪 贊同

第3案: 千惠鳳, 任鍾淳 贊同

案件 4: 63年度 技術委員會 事業에 對한 懇談會

○標準分類表 編纂問題와 標準目錄 規程編纂事業은 勿論 繼續事業으로서 新年度에는 完成을 보아야 하겠다.

○推薦圖書目錄 編纂事業은 經費만 許諾된다면 우리 技術委員들에게만 委屬할 것이 아니라 一般學界의 人士들에게도 依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定刊物 索引 事業

張一世: 現在 一般的인 雜誌의 索引 事業은 梨大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李春熙: 美國의 리더—스 가이드와 같은 綜合的인 索引이 必要합니다.

李鍾文: 亦是 綜合的인 索引事業이 必要하다고 生覺됩니다.

技術委員會用語分委會議錄

日 時：1962年 12月 19日

場 所：圖協事務局

案 件：用語集編輯에 關한件

參席者：朴熙永, 李春熙, 任鍾淳, 李
喆珪, 金京一

朴熙永：그동안 原稿를 檢討한 結果
不안전한 것이 많았다.

예를들면 英語를 우리말로 表示할
때 또는 우리말을 英語로 表示할때
여러가지 다른 말로 바꾸어지는 것
등이라 하겠으며 相互參照등에 있
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프린트版으로 만들어 再次
檢討했으면 하고 事務局에 提議합
니다.

李春熙：프린트版으로 하여서 出版하
되 一般에게는 發表하지 않기를 바

란다. 그 理由로서는 너무도 未完
成品이다.

內容에 있어서 例를들어 놓은 것이
固有의 것이 아니고 西洋의 例를
든 것이 많을 뿐더러 參照, 相互參
照등 決陷이 너무 많다.

李鍾文：活字版이건 프린트版이건 左
右間에 年內에 出版되어야 하겠습
니다.

朴熙永：現在 脫稿된 것 中에 古書部
門만은 千惠鳳氏가 맡아서 24日까
지 檢討完了토록 하고 24日부터는
編輯에 着手하여 28日까지 完決 프
린트版으로 入札케 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全員 同意

閉會 (6時 30分)

技術委員會 全體會議錄

日 時：1962年 12月 22日 午後 3時

場 所：圖協事務局

參席者：金京一, 張一世, 朴熙永, 白
麟, 千惠鳳, 尹炳泰, 李春熙
李喆珪, 任鍾淳, 劉永玟, 李
鍾文, 成宅慶

委員長：오늘 會議에 이렇게 많이 나
와 주셔서 感謝합니다.

今年度 우리 技術委員會의 重要事
業으로 그동안 推進中에 있었던 用
語集이 24日부터는 編輯에 들어 가
게 되었으며 目錄規程도 最終 原稿
整理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朴熙永：用語分委에서도 28日까지는
編輯이 끝나게 되겠습니다(報告).

白 麟：안으로 檢正問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張一世: 各分委의 委員長이 繼續해서
手酷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모두 贊同.

李鍾文: 出版部數는 몇部로 할 것인
지요?

大略 用語集과 目錄規程을 各 500
部 程度로 出刊했으면 어떨는지
요? 이것은 事務局의 豫算에 勘
案해서 事務局이 決定토록 滿場一
致로 委屬.

閉 會

編輯委員會 會議錄

日時: 1962年 12月 22日 下午 3時

場所: 圖協事務局

案件: 1. 12月號「도협월보」編輯待
遇에 關한件

2. 11月號의 經過報告

參席者: 金錫淳 朴熙永 金世翊 白
麟 張一世

討議內容:

于先 12月號 編輯待遇를 決定한 다
음 新年度부터는 月報의 形態를 바꾸

어 보자는 朴熙永氏의 意見과 지난
一年間에는 繼續物이 너무 많았다는
白麟氏의 論評이 오고가며 年間 編輯
에 있어서의 委員會에 對한 反省이
있었다.

또한 金世翊氏의 提議로 現 編輯委
員이 一括辭任하고 編輯委를 改篇 再
構成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데
全員合議. 이어서 一年間 編輯委의
勞苦에 對한 手當支給이 있었다.

事務局 日誌

12月 5日 崔洛久(文教部 社會教育課
長) 來局

金京一(京畿高校圖書館) 來
局

10日 技術委員會議

12日 閱會長 來局

金世翊(梨大圖書館) 來局

13日 金鍾進(中央教育研究所圖
書室) 來局

14日 目錄分委會議

朴啓弘(韓國研究院 圖書館)
來局

15日 嚴大燮(마음文庫 振興會 圖
書館) 來局

18日 高雄濟(忠清大學校 圖書館)
來局

任鍾淳(延世大學校 ")
來局

梁炳鐸(慶熙大學校 ")
來局

- 19日 用語技術分科委員會議 朴熙 局
永 外4名 出席
- 20日 千惠鳳(東國大學校 圖書館)
來局
尹炳泰(서울大學校 ")
來局
白 麟(" ")
來局
- 21日 金宗會(延世大學校 醫科大
學 圖書館) 來局
李達炯(坡州郡立 圖書館)來
- 22日 編輯委員會議 金錫淳 外4名
出席
技術委員會議 白 麟 外9名
出席
- 27日 申載淑(UNESCO 파리本部
圖書館) 來局
金愛羅(西江大學圖書館) 來
局
- 28日 定款修正委員會會議

韓國目錄規則

(標目의 選定, 形式 篇)

1962年度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編

서 울

社 團 人 韓 國 圖 書 館 協 會

1962

(값 200원 限定版)